



# 제46회 파리에어쇼를 다녀와서

제46회 파리에어쇼가 지난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막을 내렸다. 1909년 첫 행사를 개최한 이래 올해로 9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파리에어쇼는 그 역사만큼이나 전시규모도 최고를 자랑한다.

| 글 • 국제전시부 한봉수 대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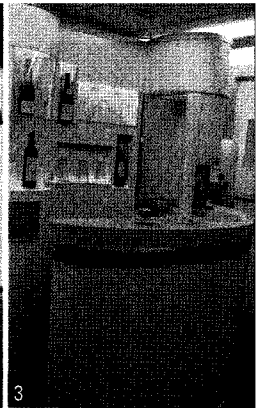
지난 2003년의 행사는 항공산업의 장기침체 및 이라크전쟁의 영향 등으로 2001년 행사규모 보다 축소되었었다. 그러나 올해 행사는 전세계 41개국에서 1,926개 업체가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지난 2003년 행사보다도 41% 증가한 총 48만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하였으며, 특히 6월 17일 하루에만 12만명이 행사장을 찾음으로써 파리에어쇼 역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2005년 파리에어쇼는 테이프 커팅 등의 공식행사 없이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개막식 첫날 오전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행사장을 방문하여 A380의 실내를 둘러보는 등 자국에서 생산하는 항공기의 수출지원 모습을 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비즈니스 기간중인 16일까지는 행사장 전체가 비즈니스 회담장으로 바뀐 듯한 분위기였다.

이번 파리에어쇼에서는 약 20대의 새로운 항공기가 선보였다. 에어버스의 A380, 닷소의

팰콘(Falcon) 7X와 UCAV 뉴론(Neuron), 보잉사의 777-200LR, 걸프스트림의 G550, 엠브레어의 EMB195 등이 대표적인 기종들이다.

특히 파리에어쇼 2005의 가장 큰 이슈는 아마도 A380의 등장일 것이다. 2층 구조인 555석의 A380은 소음이 문제라는 그동안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는 듯 조용하고 부드러운 비행을 보여 주었다. 반면에 포인트 투 포인트(point-to-point)전략을 구사하는 보잉사는 세계 최장거리 여객기인 777-200LR을 선보였다. 엠브레어사는 115석의 EMB 195을 선보임으로써 동급 이상 여객기 시장에서 보잉과 에어버스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지난 6월초 합병을 한 사젼(Sagem)과 스넥마(Snecma)가 이번 전시회에 사프란(Safran)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전시부스를 꾸몄다.

구분		2004년	파리에어쇼 2005	비고
전시참가사		41개국 1,728개 업체	41개국 1,926개 업체	
전시면적	전시장	106,000㎡	127,519㎡	실내, 살레 등
	야외 전시장	192,000㎡	192,000㎡	항공기 전시장
항공기		202대	238대	
살레		486동	512동	
초형 VIP		66개국 154명	88개국 206명	
방문객 (비즈니스 관람객)		340,000명 (197,000명)	480,000명 (223,000명)	
기자		3,000명	4,000명	



1 세계 최대규모의 탑승객을 자랑하는 에어버스사의 A380  
2 2층 구조인 A380의 내부모습

3 A380의 내부 바 카운터  
4 세계 최장거리 여객기인 B777-200ER

5 제주항공에서 운용기종으로 선정된 불바디아사의 Q400  
6 올10월 한국 공군에 인도예정인 F-15 기종

## 한국관 현황

이번 파리에어쇼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한국로스트왁스, 우리협회 등 3개사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전시장에 T-50(1/7), A-50(1/7), KO-1(1/5), UAV(1/5), KHP(1/10) 등의 모형을 전시하고, 세계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다. 살레에서는 KT-1과 T-50 등 수출 주력 항공기에 대한 활발한 비즈니스 상담을 벌였다. 특히 KAI는 그리스의 헬레닉항공산업(HAI)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리스 공군 훈련 시스템 선정을 위한 사전연구와 검토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신규사업·민수수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관련 해외업체 협상을 활발히 펼쳤다.

한국로스트왁스는 엔진용 터빈 블레이드/구조부품, 항공기용 브레이크 부품/구조부품 등을 전시하고 회사홍보와 해외 영업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약 30여개의 거래 가능한 바이어와 상담을 벌이고, 이들 업체중 3개 업체와는 계약을 위한 견적을 진행중이다.

우리협회는 올 10월 개최예정인 서울에어쇼 2005 홍보 및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행사기간중인 지난 6월 15일 파리 시내 르 메르디앙호텔에서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 확대를 위한 서울에어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주칠기 주불 한국대사와 AUVSI(국제무인시스템협회)의 드월 도니트론(Dewar Donnithrone) 회장, 프랑스 DGA(방위산업청)의 뿔레옹(Buleon) 장군 등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어쇼 장기 발전계획 및 국내 주요 획득 관련 프로젝트 소개와 리셉션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서울에어쇼가 오는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서울공항에서 개최된다. 서울에어쇼가 아-태지역 최고의 비즈니스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

1 한국관 전경  
2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미 벨사가 공동개발하는 429 헬리콥터  
3 파리 르 메르디앙 호텔에서 개최된 서울에어쇼 설명회 모습

